

주40시간제 시행과 병원경영



글·윤건일 / 이화의료원장

주 40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산별단체교섭의 합의에 따라 주2일 연속휴가, 탄력적 근로제 제한, 인력충원 부담 등 진료수익의 감소와 인건비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산별단체교섭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는 조직 확대, 강력한 투쟁과 정치적 영향력 극대화, 병원간의 격차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병원사용자에게는 개별 병원의 파업 희생과 교섭능력 경직화 등 경영의 유연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결과를 예상하고도 산별교섭에 임하는 것은 노사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질을 중요시하고 상생의 대안을 찾기 위함이다. 금번 보건의료노조와의 산별교섭은 이러한 측면에

서 많은 아쉬움과 연구과제들을 남겼다.

정부의료정책의 잦은 변화와 투입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건강보험수가 및 의료수입 감소 등으로 병원경영난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병원 진료행태(진료시간)의 변화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병원 경영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상해 보면 첫째, 응급의료시설 이용 증가 둘째, 진료수익 감소 셋째, 3교대 부서 근로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3교대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등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병원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병원경영 정

책과제와 병원의 대처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정책적 과제

1.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부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장 쟁점화되고 있는 토요일 진료가 중단되거나 축소됨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환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응급의료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시설과 기자재 등 장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의사, 간호사 등 응급의료인력의 신규채용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응급의료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응급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휴일진료 가산료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요양급여 기준에는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 ~ 익일 09시까지 인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토요일 오전 진료에 대한 휴일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기준 등에 관련법령의 정비 필요하다. 아울러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모별 시행시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병원이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하는 경우와 시기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닌 병원이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하는 경우의 휴일가산료 산정문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2. 보험 및 비급여 수가 인상

근로시간 단축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연간 진료수익은 현재보다 2.7~4.7% 감소되어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의 보전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보건의료환경 하에서 병원경영수지의 지속적인 악화는 원가 이하의 낮은 보험수가에 기인한 것이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환경 하에서 병원이 재정적 안정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에 따른 수익감소분을 보전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전방안은 보험급여를 통하여 보전하는 경우와 비급여를 포함하여 보전하는 경우로 제시할 수 있는데, 보험급여를 통하여 보전할 경우 5.1~9.3%, 비급여를 포함하여 보전할 경우 3.5~6.3%의 수가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2003).

II. 병원경영의 대처방안

1.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

주 40시간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병원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진료수익 감소와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한 비용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의 경영방식 및 인력 관리방식의 변화가 필요하

다고 본다. 특히 3교대 근무인력의 경우 연차 휴가, 생리휴가 등 휴가일수와 근무 Off의 수에 따라 인력증원 요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영자가 확실한 경영마인드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협조해야 한다. 또한 시간외 근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 청소, 안내, 배식 등 단순업무를 외주용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진료수익으로 수익을 높이려고 하지만 외부적인 요소보다 내부적인 요소에서 비용절감요소를 찾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2. 고객중심 진료기능 개편으로 수익증대

의료시장의 다양화로 인하여 연령, 소득수준, 생활주기 등에 따라 고객(환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고객(환자)이 병원을 선택하는 것 또한 병원의 브랜드 네임, 서비스 환경, 접근성, 의료수준 등을 고려해 선택하고 있는 실정에서 병원에서는 의료시장 변화로 고객의 니즈(needs)를 파악한 후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진료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토요진료 축소로 인한 진료수익 감소와 환자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일의 진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진료과 중심의 병원운영에서 병원별 특성에 따라 경쟁력있는 진료과 중심으로 통합 또는 전문

센터화하는 경쟁우위전략, 원가우위전략을 통한 전문분야의 발굴과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하다. 토요일 진료 흡수를 위해 평일의 진료횟수 증가와 더불어 조기진료, 야간진료 등 진료시간 조정을 통하여 평일의 진료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정 질환에 대한 주말 외래클리닉이나 특수검진프로그램 운영 등의 주말프로그램 마련 등 고객중심의 진료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병원환경산업의 급속한 변화로 병원경영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의약분업 이후 낮은 수가체계로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다양한 병원환경으로 환자의 선택권이 넓어짐으로서 내원하는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40시간 근무로 인하여 병원의 경영환경은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현재의 보건의료환경에서는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없다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병원에서는 환자의 맞춤 의료서비스로 외부고객인 환자를 유치하고, 직무 재설계 등으로 내·외부고객을 만족시키고 변화하는 병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병원경영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병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 정보화 지원, 세제혜택 등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2004